

“자금난 중소기업, 혁신도시 기금 이용하세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 출연금 2000억원 넘겨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위해 대출금리 감면·우대혜택 제공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내놓은 자금이 2000억원을 넘겼다. 혁신도시 기관들 출연금으로 얻은 이자 수익은 대출이자 지원에 쓰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3일 혁신도시 기관들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한전KPS, 한전KDN,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해 은행에 예약한 기금은 6월 현재 2310억원으로 집계됐다.

혁신도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2015년부터 이들 기관은 IBK기업은행, 광주은행과 협약을 맺어 지역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왔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동반성장 상생펀드” “나주사랑펀드” “동반성장예탁금” 등 사업명은 각기 다르지만 자금이 같은

지역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에 쓰인다는 점은 같다.

한국전력의 예약금은 기업은행 1500억원, 광주은행 500억원 등 200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86.6%에 달한다.

한전은 지난 2015년 기업은행에 1000억원을 맡기며 동반성장협력사업을 시작했다. 이듬해에는 기업·광주은행에 각각 500억원을 예탁했다.

은행들은 한전 예약금 이자수익으로 대출금리를 2.45~2.75% 감면해주고, 자체 조건에 따라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했다.

광주은행은 빛가람에너지밸리에 시설 투자를 한 48개사에 출연금의 72.8%에 달하는 364억원을 지원했다. 기업당 평균 7억6000만원을 대출 받은 셈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균 소진율은 72.5%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이 출연

■혁신도시 중소기업 자금 출연 현황

기관명	은행	예탁 금액	감면 금리	소진율
한전	기업	1000	2.45	76.2
한전	기업	500	2.75	99.8
한전	광주	500	2.5	72.8
한전KPS	기업	80	0.95	68.1
한전KPS	기업	70	0.7	37.1
한전KDN	기업	30	1.9	53.3
한전KDN	기업	10	1.4	-
한전KDN	광주	10	3.4	-
전력거래소	기업	10	1.65	100
농어촌공사	기업	100	2.8	-
합계/평균		2310	2.05	72.5

※일부 감면금리는 최대치

한 일부 자금은 100% 소진되기도 했다. 올해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도시 기관들의 출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한전KPS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 금융지원 동반성장예탁금’ 재원을

8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했다. 지역 피해기업들에 돌아가는 자금은 총 300억원 규모다.

한전KDN은 올해 광주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10억원을 내놓았다.

협약에 따라 광주·전남에 본사를 둔 한전KDN 전자입찰시스템 등록업체 직원은 개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리는 협약감면금리 1.90%포인트를 우대하고, 광주은행에서 최대 1.50%포인트까지 추가 우대해 최대 3.40%포인트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전KDN은 광주은행에 10억원을 특별 출연했다.

지난 2일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나주 본사에서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맺고 창업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등에 우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100억원을 무이자 예치하고 지역 중소기업은 1.4%를 자동감면 받으며 최대 5억원씩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47.00 (+59.81) ▲ 금리(국고채 3년) 0.866 (+0.015)
- ▼ 코스닥 737.66 (-5.92) ▼ 환율(USD) 1216.80 (-8.60)

10명 중 6명, 긴급재난지원금 먹거리에 지출

농진청, 880명 설문조사

소비자 10명 중 6명 꼴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먹거리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농진청청정이 소비자 880명을 대상으로 지난 28일 벌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평소보다 소비가 늘었다는 응답이 55.9%에 달했다. 이들 중 59.9%는 농식품을 포함한 농식품 구입과 외식 등 먹거리에 사용했다고 답했다.

지출 분야를 보면 농식품 구입이 36.6%로 가장 많았고 외식·배달 22.9%, 의류비 10.9%, 공산품 10.7%, 문화생활 7.2%, 교육비 6.1%가 뒤를 이었다.

신선 농산물 구매처로는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응답이 52.0%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4월 조사한 34.5%에 비해 17.5%포인트 오른 수치다.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응답도 16.2%에서 18.5%로 늘었다. 반면 긴급재난지

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대형마트(15.2%)와 온라인몰(5.4%) 이용률은 각각 8.2%포인트와 10.8%포인트 떨어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소·돼지고기 등 육류 소비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돼지고기 구입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44.6%로 가장 많았다. 한우 구입이 늘었다는 응답은 34.4%로, 수입 소고기 구입이 늘었다는 답변(18.0%)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정에서 조리하는 비중은 76.0%에서 66.7%로 감소한 반면, 외식이나 배달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이 늘었다는 응답이 36.3%를 기록해 4월(4.7%)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배달 이용이 늘었다는 응답도 37.5%로 조사돼 줄었다는 응답(13.7%)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촌 일손돕기 ‘1365 자원봉사포털’로 신청하세요”

농협 지역본부들이 영농철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자원봉사 접근성을 높였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9일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봉사 신청을 한 6명과 합평균 대동면 양파농가에서 수확을 도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참가자 중에는 호남대학교, 농협대학교 등 대학생 4명이 포함됐고 전남본부 임직원 50여 명도 힘을 보탰다.

올해부터는 농협중앙회가 협약을 맺으면서 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농촌봉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봉사 참여자는 자원봉사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농협은 (사)농촌사랑운동본부와 신용카드사회공원재단의 후원으로 농촌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협은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봉사활동’을 내걸고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일손을 돕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에서 수확, 적과 등 일손돕기에 참여한 임직원은 1500명이 넘는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영농철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일반인 자원봉사자 모집 채널을 마련했다”며 “전남농협은 영농철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손이 필요한 곳에 국민들과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29일 합평균 대동면 양파농가에서 지역 대학생들이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첫 농촌 일손돕기를 하고 있다.

“거스름돈은 모바일현금카드로 계좌입금하세요”

금융정보추진협의회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뺐고, 물건을 산 뒤 거스름돈을 그 자리에서 계좌로 입금할 수 있게 됐다.

3일 금융정보추진협의회에 따르면

행계좌 기반 모바일 직불 서비스(모바일 현금카드 서비스)가 이날부터 시작됐다.

모바일현금카드 서비스 참여 은행은 총 16곳으로, 이 가운데 SC제일·농협·제주·수협·우리·대구·전북·경남은행과 농협·수협중앙회 등 10곳은 먼저 서비스를 시작

한다. 광주은행 등 나머지 은행은 시스템이 갖춰지는 대로 올해 서비스를 한다.

이 서비스는 현재 플라스틱 카드 기반으로 제공되는 현금카드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로 이용하는 것이다.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앱을 내려받아 가맹점 결제, 잔돈 적립, 자동화기기(CD/ATM) 입출금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

광주 인공지능·문화콘텐츠 지원사업 참여 기업 공모

광주 인공지능·문화콘텐츠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8일까지 ‘2020 ACBC(AI·콘텐츠·기업융합지원센터) 제1기 투자IR’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2020 ACBC 제1기 투자IR’은 인공지능 콘텐츠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진흥지구 투자활성화지원’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번에는 인공지능·콘텐츠 분야 예비·초기 창업기업과 도약성장기업, 기업공개 대상기업 중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50개

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목표는 50억 원으로 잡았다. 선정 기업에는 ▲17개 창업투자회사 대상 투자유치 ▲사업아이템 분석·컨설팅 ▲네트워킹 활동 ▲멘토링·투자유치 관련 교육 ▲해외투자 유치 기회 등을 제공한다.

진흥원은 올해 들어 전일빌딩245층에 투자IR 참여기업 모집을 진행하는 AI·콘텐츠·기업융합지원센터(ACBC)를 구축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git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전 등 공기업 정규직·청년 인턴 하반기 채용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들이 잇따라 하반기 채용전형을 내고 있다.

3일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한전 등 주요 공기업들의 정규직·청년인턴 채용공고가 나왔다.

신입사원 연봉 4589만원으로 공기업 중 1위를 차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공)는 일반직 신입직원을 5~16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

한국수력원자력도 2020년 제1차 대졸 수준 신입사원, 사회형평전형, 해외사업 전문인력 신청을 8~22일 받는다.

한국수자원공사, 근로복지공단(각·11

일)과 한국벤처투자, 광주도시관리공사, 한국전기연구원 등도 공채 공고를 냈다.

한국전력공사는 2020년 상반기 채용형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인턴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신입사원(4직급) 공채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계약만료 후 3년 이내, 1회 한정)을 부여한다.

오는 5일 오후 2시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지원하면 된다.

한국가스안전공사(8~16일), 한국중부발전(13일) 등도 인턴사원을 받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농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0년 6월호

5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코로나19 시대 '뉴노멀 라이프'

코로나가 바꾼 일상, 슬기로운 집콕 생활 '코로나 블루' 치유해주는 전남의 행복숲 '코로나19' 탈출법 '그린 힐링 BOOK' 세계도시들의 프로젝트 '랜선여행', 대세가 되다

화제의 문화현장·무주 공공건축 프로젝트

주인의 삶에 스며든 건축, 공공건축의 미래를 보다

클릭, 문화현장②-고흥 남포미술관 개관 15주년, 전국 브랜드로 성장

도시디자인, 행복한 도시 풍경의 완성② 단순한 디자인의 모던 감성 덴마크 코펜하겐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할머니들의 이야기, 다큐 '정하게 이베네' 연출자 정경희 KBO리그 움직이는 광주·전남 출신 야구선수들

예향 초대석

자연요리 연구가 '방랑식객' 임지호

“요리의 첫마음은 자연에 대한 감사조”

문향이 숨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② 깊은 뿌리 지닌 온고을 문학 전주 전북문화관

행복한 동행, 반려동물과 함께하기④ 펫영양사에게 배우는 반려견 건강 자연식

문화계 핫 이슈 “5060 생각 회로 바꿔 디지털에 접속을”

전시 리뷰 <불혹: 더 나은 날을 위하여>전

유연준의 도시건축②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도시

백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② “나이는 숫자” 중장년, 대중문화 새 패러다임

김정운의 '바우하우스 이야기'② 세계말 '역사적 개인' 칸딘스키의 등장

힐링 투어 '건강의 섬' 신안으로 떠나는 초여름 날들이

씨앗씨름 남도 한 바퀴-광양

남도여객 매역 일머지, 가신 푸른 여객

정자, 차밭, 다산의 자취 전통의 범령소주-생맥거리